

군산시,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폭염 대책 수립·본격 추진 나서... 그늘막 175곳·무더위쉼터 649곳·살수차 운영 등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 관련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8일 군산시 포함 전국적으로 발효된 폭염주의보 발효 후 열린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장기화가 되고 있는 폭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을 준수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히 추이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정한 기상특보 기준에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를 연속 이어질 때 폭염주의보를 발효하게 되어 있다. 군산시의 경우는 최고 체감온도가 34~35도를 유지하며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광판 20개소에 기상청과 연계하여

기상특보, 현재 기온 등을 알려 시민들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사전 수립된 대책에 따라 그늘막 175개소, 무더위쉼터 549개소를 가동하여 낮에 이동하는 시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쉼터의 경우에는 냉방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길을 걸던 시민이 언제든지 입장하여 열을 식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아울러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효율적인 살수를 위해 지역을 2개 권역(동군산/서군산)으로 나눠 총 4대의 살수차를 배치해 본격 운영중이다.

살수차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 오후 5시 하루 3~5회 집중적으로 살수 작업을 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 시청 각 부서도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례 회의에서 시민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 △고령 및 노약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 방문 예찰에 최신 △지속적 폭염 저감 시설 수요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소, 경로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경로당 냉방비 점검 등을 사전에 실시했고,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현황을 취합하면서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체육회 등에 무리한 체육활동 자제 요청 △지형적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군산 산단 지역 사전 예찰 통해 작업장 내 그늘 여부·냉방기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시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폭염은 호우, 태풍 등 다른 풍수에 재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리없이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자연 재난이 폭염."이라며 "무리한 야외활동, 장거리 도보 이동, 뜨거운 오후의 공사장 야외작업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도심 속 수경시설 운영 본격화

중앙체육공원·서동공원 등 15곳... 바닥분수·실개천·인공폭포 등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의 수경시설을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과 서동공원, 모현공원 등 15개 주요 공원에 바닥분수, 인공폭포, 실개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개방해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중앙체육공원에는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음악분수가 하루 5회 가동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7시(안개분수) △오후 4:30~5:10 △오후 7:00~7:40 △오후 8:00~8:40 △오후 9:00~9:40이다.

또 영동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등에도 바닥분수와 실개

천, 광장분수가 마련돼 도심 속 시원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서동공원과 황등보삼말공원,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등에서는 주말(금·토·일) 한정으로 라인분수, 인공암벽분수, 생태연못 등 일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현공원과 송정재공원에는 콜링포그와 터널분수를 갖춰 다양한 형태의 수경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소리산자연마당, 배산부영공원 등 실개천이 조성된 공원도 더위를 피해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배산휴먼공원은 8월 한 달간 하루 6시간(오전 11시~오후 5시) 운영되는 발물놀이터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

10일 10~15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의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거점도시를 선정·방문하는 현장형 상담 제도다.

이번 상담을 통해 단순 질의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돼 앞으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제안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접수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구 주민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국정기획위가 시민들의 제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이 현장에 찾아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 개최

군산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이통장단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이통장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규 이통장단과 시청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문을 낭독하며 앞선·청탁 거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엄격한 청렴 준수를 다짐했다.

행사에 앞서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약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 다짐."이라며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통장협의회 이회봉 회장과 신명옥 부회장은 대표로 청렴 선서를 함께 낭독했으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리더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선서를 마친 이회봉 회장은 "청렴을 바탕으로 주민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7월 중 '청렴 약속 데이' 및 골든벨 행사,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 도시 군산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대야전통시장, 군산 대표 전통시장으로 첫걸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상인조직 강화·결제 편의·위생 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과제 본격 착수

군산 대야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야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방문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을 선별한 뒤 사업비를 투자해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대야 선정된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진행했다.

우선 5월 9일 '대야전통시장 첫걸음 한마당'을 개최하여 상인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서, 5월 15일에는 일자리경제과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상인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다.



이후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6월 5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국비 1억1,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결제 편의 개선 △원산지·가격 표시 체계 정비 △상인조직 강화 △위생 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기본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시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위생적 장보기 환경 조성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방문객과 상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는 광주 말바우시장과 경남 화개장터 등 전국 전통시장 명소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참고했고, 시장 간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야전통시장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쾌적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비 1억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국비와 함께 총 2억2,000만원 규모로 사업 추진에 내실을 더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 2025년 외국인

장학생 32명 최종 선발

국립군산대학교는 7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핵심사업인 '2025년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Global Korea Scholarship, 이하 GKS) 선발에서 총 3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 대학전형 모집에 참여한 전국 74개 대학 중 8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지난 2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최종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여 확정됐다. 선발 인원은 2024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1명에서 11명 늘어났다.

이는 국립군산대의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결실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최종 합격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장학생들은 오는 8월 말 입국해 1년 간의 한국어 연수 후,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학문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선발을 통해 국립군산대는 사업참여 2년 만에 총 55명(대학원52명, 학부3명)의 정부초청 장학생을 유치하는 성과가 나왔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에

방문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확대해 구강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익산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범위가 기존 보육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복지관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시는 오는 18일 복지관을 방문해 사전 신청한 5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위생 관리 교육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불소도포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구강 질환을 예방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